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Lives of the Stoics · Chapter 25 JUNIUS RUSTICUS THE DUTIFUL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Ryan Holiday & Stephen Hanselman, Lives of the Stoics — 「Junius Rusticus the Dutiful」 (원서 PDF 184~190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책 한 권으로 철인 왕을 길러 낸 스승은 왜 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했는가."

서기 66년, 트라세아는 자신을 구하려던 젊은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에게 어떤 정치가가 될지 생각할 시간이 아직 있다고 말했다. 그 손자 유니우스 루스티쿠스는 책 속에 숨어 살 수도 있었지만 의무감에 이끌려 군인 · 장군 · 집정관이 되었고, 자기 서재의 에픽테토스 어록을 젊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건네 세계 최초의 철인 왕을 빚는 데 힘을 보탰다. 그러나 로마의 도시 장관이 된 그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기를 거부한 그리스도교 철학자 유스티누스에게 사형을 명했다. 그는 해야 한다고 믿은 일을 했을 뿐이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름으로 내려진 그 판결은 그것만 아니면 흠이 없었을 두 사람의 명성에 얼룩으로 남았다. 이 노트는 한 사람의 빛과 그늘을 여섯 유닛으로 나누어, 출제자가 어디를 뒤집을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24장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전자책이라 인쇄 쪽 번호가 없음).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시·대화·책 목록)은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재능 있는 사람은 세상에 기여해야 한다(185쪽 ¶4~¶5) / 책 한 권이 세상을 바꾼다(185쪽 ¶7~¶8) / 경멸은 불의에 앞선다(188쪽 ¶2) / 이견은 피할 수 없고 모두가 한 몸의 일부다(189쪽 ¶4~¶5) / 작은 사건이 큰 결과를 낳는다(189쪽 ¶7~¶9)
4~5	**밑줄 함축 의미**	a mere pen-and-ink philosopher / called him to higher things / A book given. A book read. / pose ostentatiously as the moral athlete / deliver hard truths / biding his time / He reached Marcus Aurelius / not simply a pen-and-ink philosopher / lost in the sway of his own power / wretch that you are / Go along to get along / the roles were reversed / slap him on the wrist / black-and-whiteness / a stain on two otherwise flawless reputations / the real monument
6	지칭 추론	he·him이 Marcus·Junius 사이를 오가는 186쪽 ¶5 / He(like Seneca) = Junius(186쪽 ¶2) / that faith(185쪽 ¶2) / It = 도시 장관 자리(187쪽 ¶2) / it = mercy(188쪽 ¶5) / the former · the latter(190쪽 ¶1)
7~8	내용 일치·불일치	생몰 · 출신(184쪽: B. 100 AD · Rome · D. 170 AD) / 66 AD 트라세아(185쪽 ¶1) / 하드리아누스 치하 집정관 · 아리아노스(185쪽 ¶6) / 161 · 162 AD · 도시 장관 5년(186쪽 ¶2 · 187쪽 ¶1) / 165 AD · 크레스켄스 · 제자 여섯 · 사마리아(187쪽 ¶2~¶3) / 168 AD · 두 해 안에 죽음(190쪽 ¶2)
9~10	**어법**	가주어 it + for 의미상 주어 · would have p.p. · owe it to A to V · who 관계절 연속 · prove + O + to be · it seems 삽입 · in so doing · It ~ that 강조 · 가주어 + 삽입 추측절 · from A to B + how to · 대부정사 to · had had · so ~ that · enough to · 수동 분사구문 · may well have p.p. · with 부대 상황 · too ~ to · 가정법 과거완료 의문문 · let + O + be p.p. · even if + had p.p. · Just as ~, so too 도치 · should have been p.p. · the former / the latter · 전치사 + 관계대명사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dissent↔assent · retreat↔advance · superficial↔thorough · ostentatiously↔modestly · truculent↔docile · revere↔despise · deference↔disrespect · endemic↔rare · devout↔impious · contempt↔respect · mercy↔cruelty · inevitable↔avoidable · flawless↔flawed · begrudgingly↔willingly
12	빈칸 추론	You must contribute / small events / deference to a wise man / He deserved mercy / ready to be reconciled / one large body(sympatheia) / a threat to the public order, a threat to his power
13	문장 삽입	재판정의 요구(188쪽 ¶8~¶9): 뉘우칠 기회 → 로마인이라면 누구나 할 일 →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 → 불경과 같은 벌 → 아그리피누스 · 카토 · 트라세아 · 헬비디우스의 선택 → 뒤바뀐 역할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4	무관한 문장	재판 기록(187쪽 ¶7 ~ 188쪽 ¶1, ¶6)에 마르쿠스가 배운 독서 습관(186쪽 인용)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트라세아의 거절 → 아들과 손자 → 100년 무렵 태어난 유니우스 → 마르쿠스의 스승(185쪽 ¶1~¶3)
16	요약문 완성	플루타르코스의 관찰 → 조언자를 자기 위에 둔 마르쿠스 → 존중(deference)이 선함을 설명(186쪽 ¶6 ~ 187쪽 첫 줄)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고유명사·숫자·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숫자가 많다 — 출생 100 AD 무렵 · 사망 170 AD · 트라세아 66 AD · 마르쿠스 즉위 161 AD · 두 번째 집정관 162 AD · 유스티누스 재판 165 AD · 퇴임 168 AD, 여기에 『관용에 대하여』 55~56 AD와 미치슨의 소설 1939년. 기간과 수도 있다(도시 장관 5년 · 제자 여섯 · 두 해 안에 죽음 · 거의 30년 만의 두 번째 집정관). 인물도 많다(아룰레누스 · 트라세아 · 하드리아누스 · 아리아노스 · 에픽테토스 · 세네카 · 네로 · 플루타르코스 · 유스티누스 · 크레스켄스 · 성 바울 · 나오미 미치슨 · 아그리피누스 · 카토 · 헬비디우스 · 제논 · 크리시포스).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Cynic ↔ Stoic Crescens, second ↔ first term as consul, five ↔ ten years, after ↔ before Marcus became emperor, favorable ↔ unfavorable ruling, father ↔ mother). 누가 무엇을 했는지 · 누구의 이름으로 · 누구의 명령으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읽는다.

1-2. 구조도 — 「Junius Rusticus the Dutiful」 (185~190쪽)

전기·논증형(할아버지의 유산 → 의무감 → 군인과 집정관 → 책 한 권 → 스승의 가르침 → 세네카와의 평행 → 스승을 위에 둔 황제 → 도시 장관 → 유스티누스 사건 → 재판과 경멸 → 뒤바뀐 역할 → 처형과 얼룩 → 공감의 물음 → 작은 사건의 큰 결과 → 위협만 본 눈 → 죽음과 진짜 기념비). 핵심 축은 **의무감이 낳은 빛(철인 왕을 길러 냄) vs 의무감이 낳은 그늘(유스티누스 처형)**, 그리고 **세네카와 네로 vs 루스티쿠스와 마르쿠스**.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85 ¶1~¶2	도입	66 AD 트라세아와 아룰레누스 · 어떤 정치가가 될지 생각할 시간 / 아들 → 손자가 그 믿음을 대체로 증명 · 작은 일에 달린 역사(it seems)
185 ¶3	손자	100 AD 무렵 출생 · 할아버지 살해 뒤 10년이 안 됨 / 마르쿠스를 스토아로 이끈 스승 · 세계 최초의 철인 왕
185 ¶4~¶5	의무	책과 이론에 숨고 싶은 마음 · '펜과 잉크의 철학자'(한 고대 작가) / 할아버지가 심은 의무감 · 재능 있는 이는 기여해야 한다
185 ¶6	경력	군인 · 장군 · 30대 초반 하드리아누스 치하 집정관 / 아리아노스를 만남 ·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로버트슨 등의 추측)
185 ¶7~¶8	책 한 권	유니우스 서재의 에픽테토스 어록 → 젊은 마르쿠스 / 건네진 책, 읽힌 책 · 알맞은 두 사람, 알맞은 때
185 ¶9~186 인용	스승	20대 초반 공식 스승 · 품위 있는 처신부터 명료한 글쓰기까지 / 궤변 · 과시 · 수사를 멀리함 · 화해할 준비 · 꼼꼼한 독서 · 에픽테토스의 기록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186 ¶2	평행	세네카가 네로에게 전하지 못한 것 / 아버지 · 어머니를 여읜 뒤 / 161 AD 즉위 → 행정관이자 조언자 · 훗날 집정관
186 ¶3~¶4	대비	듣기 싫은 진실 · 화가 나도 늘 화해 / 반항적인 네로 · 존경 → 원망과 혐오 · 경계하지 않은 세네카
186 ¶5~¶6	존중	입맞춤 · 누구보다 먼저 예우 · '제자' · 그에게 가 닿음 / 플루타르코스 · 조언자를 자기 위에 둠 · 존중이 선함을 설명
187 ¶1	장관	162 AD 두 번째 집정관 · 5년 도시 장관(경찰 · 법 집행 · 공공 건설 · 식량) · 부패 속 명예로운 직무
187 ¶2~¶3	사건	165 AD 사소해 보이는 재판 · 유스티누스와 크레스켄스 · 제자 여섯 / 사마리아의 스토아 스승 · 유리한 판결 기대 · 세네카의 형제와 성 바울
187 ¶4~¶6	충돌	펜과 잉크의 철학자가 아님 · 평화를 지키는 일 · 견제 없는 권력 / 1939년 미치슨의 소설 · 나우시파네스 / 옳다고 믿으며 끔찍한 일을
187 ¶7 ~ 188 ¶2	재판	『유스티누스 행전』 · 그리스도인인가 /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임 · 가련한 자 · 경멸은 불의에 앞선다
188 ¶3~¶7	자비	『관용에 대하여』(55~56 AD) · 힘 있는 자의 결정 / 자비를 받을 만함 · 너무 짜증이 남 · 하늘에 대한 물음 · 화해의 준비는 어디에
188 ¶8 ~ 189 ¶1	역전	뉘우칠 기회 · 제물 / 아그리피누스 · 카토 · 트라세아 · 헬비디우스의 선택 · 역할이 뒤바뀜 / 용감한 그리스도인 · 사형 명령
189 ¶2~¶6	얼룩	마르쿠스의 이름 · 루스티쿠스의 명령 · 두 명성의 얼룩 / sympatheia · 하나의 몸 · 피할 수 없는 이견 / 가벼운 꾸중 대신 흑백 논리 · 165 AD
189 ¶7~¶9	역사	돌이켜 볼 때만 유명 · 파르티아 전쟁 · 게르만 부족 · 역병 / 책 한 권처럼 작은 사건의 큰 결과
189 ¶10~190 ¶1	눈	노예 제도 · 종교의 자유 / 마지못해서라도 존중했어야 / 공공질서와 권력에 대한 위협 · 할아버지를 죽인 동기 / 전자와 후자
190 ¶2~¶3	끝	168 AD 퇴임 · 두 해 안에 죽음 · 원로원의 영예 · 조각상 / 진짜 기념비 = 마침내 왕이 된 제자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유니우스의 마음	집에 머물러 이론을 쓰는 '펜과 잉크의 철학자'(한 고대 작가의 전언)	할아버지가 심은 의무감 → 군인 · 장군 · 집정관
세상을 바꾼 것	거창한 사건	건네진 책 한 권, 읽힌 책 한 권 — 알맞은 두 사람, 알맞은 때
두 스승과 두 제자	세네카와 네로 — 전하지 못함 · 존경이 원망으로	루스티쿠스와 마르쿠스 — 듣기 싫은 진실 · 늘 화해
제자의 태도	네로 — 권력을 쥘 때를 기다린 반항적인 학생	마르쿠스 — 평생 배우기를 갈망, 스스로를 '제자'로 여김
통치자와 권력	남의 다스림을 피하려 다스리는 정치가들(플루타르코스)	조언자를 자기 위에 둔 마르쿠스 — 선하게 남음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재판정의 루스티쿠스	글로 사는 펜과 잉크의 철학자	평화와 법을 지키는 관리 · 권력에 휩쓸렸을 것(추측)
유스티누스의 기대 / 결과	스토아 재판관의 유리한 판결(한 세기 전 성 바울의 석방)	경멸 · 자비 없음 · 사형
마르쿠스가 배운 것 / 재판정	화해할 준비 · 절반쯤 마중 나감(186쪽 인용)	유스티누스 앞에서 사라진 그 준비(188쪽 ¶7)
뒤바뀐 역할	폭군이 스토아에게 복종을 요구(트라세아 등)	스토아가 그리스도인에게 복종을 요구(유스티누스)
놓친 것 / 본 것	sympatheia — 이단자도 하나의 몸의 일부	공공질서와 자기 권력에 대한 위협 — 흑백 논리
당시 / 돌이켜 보면	전쟁과 역병 속에 거의 눈에 띄지 않은 사건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처형 가운데 하나
루스티쿠스의 기념비	조각상(『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 · 악명 높은 재판	그가 길러 낸 제자 — 마침내 왕이 된 스토아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Junius Rusticus	B. **100 AD** · Origin **Rome** · D. **170 AD** · 발음 JUNE-ee-us ROOS-ti-cuss · 저자가 붙인 이름 = the Dutiful · 본문은 100 AD '무렵'(around) 출생
Arulenus Rusticus	유니우스의 **할아버지** · 66 AD 트라세아를 구하려고 반대 의견을 내겠다고 나섬 → 트라세아 거절 · 편집증에 사로잡힌 황제에게 살해됨(190쪽 첫 줄)
66 AD	트라세아가 거의 확실한 사형 선고를 앞둔 해 · "너무 늦었다" · 젊은이에게는 어떤 정치가가 될지 생각할 시간(21장 연결)
한 고대 작가	유니우스에게 '그저 펜과 잉크의 철학자'로 만족할 마음이 있었다고 전함 · 의무감 = 할아버지의 본보기(카토도 그러함)
Hadrian	유니우스가 **30대 초반**에 집정관을 지낸 때의 황제(162 AD가 '두 번째' 임기이므로 첫 임기로 보임 · 187쪽 ¶1)
Arrian / Robertson	아리아노스 = 에픽테토스 밑에서 공부, 유니우스가 어느 시점에 만남 / 유니우스가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 = 도널드 로버트슨 등 현대 학자들의 **추측**
에픽테토스의 책	유니우스 서재의 에픽테토스 어록 사본 → 젊은 마르쿠스의 손으로 · 186쪽 인용 = 에픽테토스의 기록(remembrances)을 자기 서재에서 꺼내 줌
공식 스승	마르쿠스의 **20대 초반** 어느 때(185쪽 ¶9) · 186쪽 ¶2는 **스물다섯 살**에 공부를 시작했다고 씀(원서 안에서 표기가 다름)
Sinuessa	루스티쿠스가 마르쿠스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곳 — 꾸밈없는 편지의 본보기(186쪽 인용)
Seneca / Nero	네로 = 아버지를 여읜 뒤 10대에 세네카에게 맡겨짐 / 마르쿠스 = 어머니를 여읜 뒤 · 유니우스도 세네카처럼 훗날 집정관(18장 연결)
161 AD	마르쿠스가 황제가 된 해 → 유니우스 = 행정관이자 조언자
Historia Augusta	마르쿠스가 늘 입맞춤으로 맞고 누구보다 먼저 예우함(186쪽 ¶5) / 로마 곳곳의 조각상(190쪽 ¶2)
Plutarch	많은 정치가가 남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다스리려 한다고 훗날 말함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162 AD	두 번째 집정관 임기 — 첫 임기 뒤 **거의** 30년
urban prefect	**5년** · 사실상 로마 시장 · 경찰 · 법 집행 · 공공 건설 · 식량 공급 · 명예롭게 해냄(모든 기록)
165 AD	겉보기에 사소한 재판이 올라옴 · 처형도 같은 해(189쪽 ¶6)
Justin Martyr	그리스도교 철학자 · 사마리아에서 스토아 스승에게 배운 뒤 그리스도교로 · 제자 **여섯**과 기소 · 기록 = 『유스티누스 행전』
Crescens	**견유학파**(Cynic) 철학자 ·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고발
Saint Paul / Corinth	한 세기 전 세네카의 형제가 코린토스에서 성 바울을 공정하게 재판해 풀어 줌 — 유스티누스가 알던 일
Naomi Mitchison	**1939년** 소설(파시즘이 유럽의 종교적 소수자를 짓밟던 때) · 스토아 철학자 나우시파네스가 그 충돌을 설명
On Clemency	세네카가 **55~56 AD**에 네로에게 쓴 글 ·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 그를 규정함
같은 선택	아그리피누스 · 카토 · 트라세아 · 헬비디우스 · "Go along to get along" · 이번에는 역할이 뒤바뀜
sympatheia	제논과 크리시포스까지 거슬러 감 · 우리는 모두 하나의 커다란 몸의 일부(4장 연결)
189쪽 ¶8 배경	파르티아 전쟁 · 국경의 게르만 부족 · 역병(수백만 명이 죽게 됨)
168 AD	도시 장관에서 물러남 → **두 해** 안에 죽음(표지 D. 170 AD) · 마르쿠스가 원로원에 영예를 명함 · 삶의 거의 절반을 함께함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Lives of the Stoics · 「Junius Rusticus the Dutiful」 (원서 PDF 185~190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25-1 할아버지가 남긴 믿음, 책보다 큰 부름 185쪽 ¶1~¶5

원문 위치 원서 185쪽 ¶1~¶5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In 66 AD, as Thrasea faced an almost certain death sentence	숫자 — 서답형 · 21장 연결
▲	¶1 첫 문장	Arulenus Rusticus had offered to dissent and save him	과거완료 + to 하나에 동사 둘
◆	¶1 둘째 문장	No, Thrasea had said, it is too late for me.	밑줄 의미: 나는 늦었으니 구하려 말라
▲	¶1 셋째 문장	there was still time, he had said ..., to think about what kind of politician he would be	time + to부정사(삽입절로 떨어짐) / 간접의문문
▲	¶2 첫 문장	raise a son who in turn would have a son who	관계절 who가 두 번 이어짐
◆	¶2 첫 문장	proved that faith to be well founded	지칭: that faith = 젊은이의 앞날에 대한 트라세아의 믿음
★	¶2 둘째 문장	how often history hinges on small events	요지 — 장 전체의 주제(189쪽 ¶9와 연결)
★	¶3 첫 문장	the grandson of Arulenus, was born around 100 AD	숫자 — 서답형 1순위(around = 무렵)
▲	¶3 둘째 문장	helped form, in so doing, the world's first philosopher king	삽입구 in so doing + 대시 동격
▲	¶4 첫 문장	It would have made sense for Junius to want to turn away	가주어 it + for 의미상 주어 / would have p.p.
◆	¶4 둘째 문장	a "mere pen-and-ink philosopher"	밑줄 의미 1순위: 글로만 사는 학자
▲	¶4 셋째 문장	the sense of duty—instilled by the example of his grandfather, as it had been for Cato—called him	과거분사 삽입 + as 생략절
◆	¶4 셋째 문장	called him to higher things	밑줄 의미: 공적인 일로 이끎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5 첫 문장	You owe it to yourself and to the world to actively engage with	주장 1순위 — 가목적어 it
★	¶5 마지막 문장	You must contribute.	빈칸 · 주장 후보

내용

서기 66년, 트라세아가 거의 확실한 사형 선고를 앞두었을 때 아룰레누스 루스티쿠스는 반대 의견을 내어 그를 구하겠다고 나섰다. 트라세아는 거절했다. 자신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구하려던 그 용감한 젊은이에게, 그대에게는 어떤 정치가가 될지 생각할 시간이 아직 있다고 말했다. 아룰레누스는 훗날 아들을 길렀고, 그 아들이 다시 낳은 아들이 그 믿음이 대체로 옳았음을 증명했다. 그 손자는 역사가 얼마나 자주 작은 일에 달려 있는지도 증명한 듯하다. 아룰레누스의 손자 유니우스 루스티쿠스는 할아버지가 살해되고 채 10년이 지나지 않은 서기 100년 무렵 태어났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스토아 철학으로 이끈 스승이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 최초의 철인 왕을 빚는 데 힘을 보탰다. 아룰레누스가 용감하게 맞섰던 자들과 정반대인 지도자였다. 유니우스가 이 폭력적인 세상에 등을 돌리고 책과 이론 속에 숨고 싶어 했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 고대 작가는 유니우스의 마음 한편에 '그저 펜과 잉크의 철학자'로 만족하며 집에 머물러 평화롭게 이론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카토에게 그랬던 것처럼 할아버지의 본보기가 심어 준 의무감이 그를 더 높은 일로 불러냈다. 이 본보기는 재능 있고 뛰어난 모든 사람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행성에서 주어진 짧은 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빚을 자신과 세상에 지고 있다. 생각 속으로만 물러날 수는 없다. 기여해야 한다.

어법

- **In 66 AD, as Thrasea faced an almost certain death sentence, Arulenus Rusticus had offered to dissent and save him** : as = ~할 때(시간). had offered = 과거완료(21장에서 이미 있었던 일을 돌아봄). offer to V — to 하나에 dissent와 save가 병렬. almost certain = 부사 almost가 형용사 certain을 꾸밈.
- **But there was still time, he had said to that courageous young man trying to save him, to think about what kind of politician he would be** : there was time to V = ~할 시간이 있었다. 삽입절 he had said to ~가 끼어 time과 to think가 떨어졌다. trying to save him = young man을 뒤에서 꾸미는 현재분사. what kind of politician he would be = 간접의문문(평서문 어순).
- **Rusticus would go on to raise a son who in turn would have a son who by and large proved that faith to be well founded** : go on to V = 이어서(훗날) ~하다. 관계절 who가 두 번 이어진다(a son who ... a son who ...). prove + O + to be 형용사 = O가 ~임을 증명하다. by and large = 대체로.
- **He would also prove, it seems, how often history hinges on small events** : it seems = 삽입(~인 듯하다, 저자의 추측). prove의 목적어 = 간접의문문 how often + S + V. hinge on = ~에 달려 있다.
- **He would become the tutor who introduced Marcus Aurelius to Stoicism and helped form, in so doing, the world's first philosopher king** : introduce A to B = A를 B에 입문시키다. introduced와 helped가 who의 동사로 병렬. help + 원형(form). in so doing = 그렇게 함으로써(삽입). 대시 뒤 the kind of leader ~ = philosopher king의 동격.
- **It would have made sense for Junius to want to turn away from this violent world, to hide in his books and in theories** : 가주어 It – 진주어 to want ~, for Junius = 의미상 주어. would have p.p. = (그랬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to hide ~ = to turn away를 풀어 쓴 동격 to부정사.
- **the sense of duty—instilled by the example of his grandfather, as it had been for Cato—called him to higher things** : 주어 the sense of duty와 동사 called 사이에 과거분사구 instilled by ~가 삽입. as it had been (instilled) for Cato = 카토에게 그랬듯(반복되는 instilled 생략). call A to B = A를 B로 부르다.

- **You owe it to yourself and to the world to actively engage with the brief moment you have on this planet** : owe it to A to V = ~하는 것은 A에 대한 의무다(it = 가목적어, to actively engage가 진목적어). to와 동사 사이에 부사 actively가 낀 분리 부정사. the brief moment (that) you have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issent (v.)	반대 의견을 내다	object	assent
courageous	용감한	brave	cowardly
by and large	대체로	on the whole	—
well founded	근거가 충분한	justified	groundless
hinge on	~에 달려 있다	depend on	—
decade	10년	ten years	—
tutor	가정교사, 스승	teacher	pupil
turn away from	~에 등을 돌리다	shun	embrace
content (a.)	만족하는	satisfied	discontented
instill	(생각을) 심어 주다	implant	—
engage with	~에 참여하다	take part in	withdraw from
retreat (v.)	물러나다	withdraw	advance
exclusively	오로지	solely	partly
contribute	기여하다	give	—

내용 일치 66 AD = 트라세아가 거의 확실한 사형 선고를 앞둔 해 · 아룰레누스 = 반대 의견을 내어 구하려 함 → 트라세아 거절('너무 늦었다') · 아들 → 손자가 그 믿음을 '대체로' 증명 · 역사가 작은 일에 달려 있음을 증명한 '듯함'(it seems) · 유니우스 = 아룰레누스의 손자, 100 AD '무렵' 출생 · 할아버지가 살해되고 10년이 안 됨 · 마르쿠스를 스토아로 이끈 스승 · 세계 최초의 철인 왕 · '펜과 잉크의 철학자'로 만족할 마음 = 한 고대 작가의 전언 · 할아버지의 본보기가 심은 의무감(카토도 그러함). **밑줄 의미** a mere pen-and-ink philosopher = 세상일에 나서지 않고 글과 이론으로만 사는 학자 / called him to higher things = 의무감이 그를 공적인 일로 이끎 / 185쪽 ¶2 that faith = 젊은이에게 어떤 정치가가 될지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트라세아의 믿음.

> **한 줄 요약** 트라세아를 구하려던 아룰레누스의 손자 유니우스 루스티쿠스는 책 속에 숨을 수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가 심어 준 의무감에 이끌려 세상에 나섰다.

25-2 책 한 권이 건너간 길, 스승이 가르친 것 185쪽 ¶6 ~ 186쪽 인용

원문 위치 원서 185쪽 ¶6 ~ 186쪽 인용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6 첫 문장	became a soldier and a general	내용 일치 — 의무감의 결과
★	¶6 둘째 문장	In his early thirties, he was a consul under Hadrian	인물 · 숫자 — 서답형 후보
★	¶6 셋째 문장	he met Arrian, who had studied under Epictetus	인물 — 24장 연결
▲	¶6 넷째 문장	It's perfectly possible, modern scholars like Donald Robertson speculate, that	가주어 – 진주어 that절 + 삽입절(추측)
▲	¶7	it would be a personal copy of Epictetus's sayings that made its way	It ~ that 강조 + would
◆	¶7	changed the course of a man's life	밑줄 의미: 마르쿠스의 삶을 바꿈
◆	¶8 첫~둘째 문장	A book given. A book read.	밑줄 의미 1순위: 단순한 주고받음
▲	¶8 셋째 문장	Such a simple exchange, but done between …—as it was here—can be enough to	과거분사구 + 삽입 as절 / enough to V
★	¶9 첫 문장	At some point in the boy's early twenties … official tutor	내용 일치 — 186쪽 ¶2(스물다섯)와 표기 차이
▲	¶9 둘째 문장	It was, from the looks of it, a transformative period	삽입(겉보기에는 — 추측)
▲	¶9 셋째 문장	from how to carry himself with dignity to how to write clearly	from A to B + how to
▲	186쪽 인용	become aware of the fact that I needed amendment	동격 that
◆	186쪽 인용	pose ostentatiously as the moral athlete	밑줄 의미: 도덕군자인 척 과시함
★	186쪽 인용	ready to be reconciled … meet them halfway	188쪽 ¶7과 연결 · 통합 사고 후보
★	186쪽 인용	to read with minute care and not to be content with a superficial bird's-eye view	무관한 문장 재료
★	186쪽 인용 끝	the remembrances of Epictetus, which he supplied me with out of his own library	24장 연결 · 서답형

내용

유니우스는 군인이 되었고 장군이 되었다. 30대 초반에는 하드리아누스 치하에서 집정관을 지냈다. 그는 어느 시점에 에픽테토스 밑에서 공부한 아리아노스를 만났다. 도널드 로버트슨 같은 현대 학자들은 유니우스 자신이 에픽테토스의 강의를 듣고 그 위대한 현자가 가르친 것을 직접 기록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추측한다. 어찌 되었든 유니우스의 서재에서 젊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손으로 곧장 건너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지닌 에픽테토스 어록 사본이었다. 건네진 책 한 권. 읽힌 책 한 권. 이렇게 단순한 주고받음도 알맞은 때에 알맞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여기서처럼,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할 수 있다. 마르쿠스가 20대 초반이던 어느 때 유니우스는 그의 공식 스승이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시기는 사람을 바꾸어 놓은 공부의 시간이었다. 마르쿠스가 훗날 돌아보았듯, 그는 품위 있게 처신하는 법부터 글을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쓰는 법까지 크고 작은 것을 유니우스에게서 배웠다. 그는 나이가 든 뒤 이렇게 회고했다. "루스티쿠스에게서 나는 배웠다. 내 성품에 고침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따지기 좋아하는 궤변에 끌려가지 않는 것, 사변적인 주제로 논문을 쓰거나 짧은 설교를 늘어놓거나 도덕의 운동선수나 이타적인 사람인 양 과시하지 않는 것, 수사와 시와 화려한 말을 멀리하는 것, 집 안에서 예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따위로 품위를 어기지 않는 것, 시누에사에서 내 어머니에게 쓴 그의 편지처럼 꾸밈없이 편지를 쓰는 것, 화를 내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과 기꺼이 화해하고 그들이 돌아설 뜻을 보이면 곧바로 절반쯤 마중 나갈 준비를 하는 것, 꼼꼼하게 읽고 높은 데서 내려다보듯 훑어보는 데 만족하지 않는 것, 말 많은 사람에게 너무 빨리 동의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가 자기 서재에서 꺼내 준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의 기록을 알게 된 것."

어법

- **Junius, for his part, became a soldier and a general. In his early thirties, he was a consul under Hadrian** : for one's part = ~로서는(앞 내용을 이어 받음). in one's early thirties = 30대 초반에. under + 통치자 = ~의 치하에서.
- **At some point he met Arrian, who had studied under Epictetus** : 계속적 용법 who(Arrian을 덧붙여 설명). had studied = 과거완료(만나기 전에 이미 공부함). study under = ~ 밑에서 배우다.
- **It's perfectly possible, modern scholars like Donald Robertson speculate, that Junius himself attended Epictetus's lectures and wrote his own notes of what the great sage taught to students**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그 사이에 삽입절(현대 학자들의 추측 — 단정 아님). himself = 강조 재귀대명사(그 자신이 직접). attended와 wrote 병렬.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 **it would be a personal copy of Epictetus's sayings that made its way from Junius's library directly into the hands of a young Marcus Aurelius and changed the course of a man's life** : It ~ that 강조구문: 주어 a personal copy ~를 강조(would be = 과거에서 본 미래). made와 changed 병렬. make one's way = 나아가다, 건너가다.
- **Such a simple exchange, but done between the right two people at the right time—as it was here—can be enough to change the world** : done ~ = exchange를 꾸미는 과거분사구(but으로 대조). as it was (done) here = 반복 생략. 주어 exchange ↔ 동사 can be. enough to V = ~하기에 충분한.
- **It was, from the looks of it, a transformative period of study** : from the looks of it = 겉보기에는(삽입, 단정이 아님). transformative = 사람을 바꾸어 놓는.
- **he learned from Junius matters big and small, from how to carry himself with dignity to how to write clearly and effectively** : learn의 목적어 matters big and small(형용사 둘이 뒤에서 꾸밈)이 from Junius 뒤로 감. from A to B. 의문사 + to부정사(how to ~) = ~하는 법. carry oneself = 처신하다.
- **I learned to become aware of the fact that I needed amendment and training for my character; and not to be led aside into an argumentative sophistry** : learned의 목적어 to부정사가 세미콜론으로 길게 이어지는 목록. the fact that = 동격 that절. not to be led = to부정사의 부정 + 수동형.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onsul	(로마의) 집정관	magistrate	—
speculate	추측하다	conjecture	—
sage	현자	wise man	fool
make one's way	나아가다, 건너가다	travel	—
official (a.)	공식의	formal	unofficial
transformative	(사람을) 바꾸어 놓는	life-changing	—
dignity	품위	grace	indignity
amendment	고침, 개선	correction	—
sophistry	궤변	fallacy	—
ostentatiously	과시하듯	showily	modestly
eschew	피하다, 멀리하다	avoid	embrace
affectation	꾸밈, 가식	pretension	naturalness
superficial	피상적인	shallow	thorough
voluble	말이 많은	talkative	taciturn

내용 일치 군인 · 장군 · 30대 초반 하드리아누스 치하 집정관 · 아리아노스 = 에픽테토스 밑에서 공부한 사람 · 유니우스가 직접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 = 도널드 로버트슨 등 현대 학자들의 '추측' · 마르쿠스에게 건너간 것 = 유니우스 서재의 에픽테토스 어록 사본 · 공식 스승이 된 때 = 마르쿠스의 20대 초반 어느 때(186쪽 ¶2는 스물다섯 살 — 원서 안에서 표기가 다름) · 배운 것 = 품위 있는 처신부터 명료한 글쓰기까지 · 인용 = 궤변 · 사변적 논문 · 과시 · 수사를 멀리함, 꾸밈없는 편지(시누에사에서 어머니에게), 화해할 준비, 꼼꼼한 독서, 말 많은 사람에게 쉽게 동의하지 않음, 에픽테토스의 기록. **밑줄 의미** A book given. A book read. = 책 한 권을 건네고 읽는 단순한 일이 알맞은 두 사람 사이에서 세상을 바꿈 / pose ostentatiously as the moral athlete = 도덕적 수련을 남에게 과시함 / meet them halfway = 상대가 돌아서면 나도 절반을 다가감.

> **한 줄 요약** 하드리아누스 치하의 집정관이었던 유니우스는 자기 서재의 에픽테토스 어록을 젊은 마르쿠스에게 건네고 그의 스승이 되어, 품위 있는 처신부터 꾸밈없는 글쓰기와 화해의 태도까지 가르쳤다.

25-3 세네카와 네로, 루스티쿠스와 마르쿠스 186쪽 ¶2 ~ 187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86쪽 ¶2 ~ 187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 첫 문장	all that Seneca was supposed to but failed to impart to Nero	요지 · 18장 연결
▲	¶2 첫 문장	was supposed to but failed to impart	to 둘이 동사 impart를 함께 씀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 셋째 문장	attached to Seneca as a teenager,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대비 — 네로(아버지) / 마르쿠스(어머니)
★	¶2 넷째 문장	at age twenty-five, after the death of his mother	숫자 — 185쪽 ¶9(20대 초반)와 표기 차이
★	¶2 여섯째 문장	In 161 AD, when Marcus became emperor	숫자 — 서답형 후보
◆	¶2 일곱째 문장	He, like Seneca, would go on to serve as consul.	지칭: He = Junius
▲	¶3 첫 문장	Junius seemed to be willing to deliver hard truths	추측 seemed + be willing to
◆	¶3 첫 문장	deliver hard truths	밑줄 의미: 듣기 싫은 바른말
▲	¶3 셋째 문장	It's a credit to both of them that ... so angry ... that he did something	가주어 it + so ~ that
◆	¶4 첫 문장	biding his time so he could do whatever he wanted	밑줄 의미: 권력을 쥘 때만 기다림
▲	¶4 둘째 문장	The respect he had had for Seneca ... transmogrified with time into	had had(과거완료) / 관계사 생략
▲	¶4 셋째 문장	unalarmed enough to allow Nero to get that power he so craved	형용사 + enough to / allow + O + to V
▲	¶5 첫 문장	was eager to learn and remained so	so = eager to learn을 받음
★	¶5 둘째 문장	In the Historia Augusta, we're told he greeted Junius with a kiss	출처 — 내용 일치 후보
◆	¶5 마지막 문장	He reached Marcus Aurelius.	밑줄 의미 1순위: 마음에 가 닿음
★	¶6 ~ 187쪽 첫 줄	govern as an exemption from being governed ... deference	요약 1순위 · 플루타르코스

내용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세네카가 네로에게 전해 주어야 했으나 끝내 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유니우스에게서 배웠다. 실로 놀라운 평행이다. 네로는 아버지를 여읜 뒤 10대에 세네카에게 맡겨졌고, 마르쿠스는 어머니를 여읜 뒤 스물다섯 살에 유니우스와 공부를 시작했다. 네로가 황제가 되자 세네카는 더 무거운 국정에 끌려 들어갔고, 서기 161년 마르쿠스가 황제가 되자 유니우스는 행정관이자 조언자의 역할로 끌려 들어갔다. 그도 세네카처럼 훗날 집정관을 지내게 된다. 그러나 세네카와 달리 유니우스는 제자에게 듣기 싫은 진실을 기꺼이 말한 듯하다. 마르쿠스는 자신이 '루스티쿠스에게 자주 화가 났다'고 털어놓지만, 스승과 제자는 늘 화해했다. 마르쿠스가 유니우스의 비판이나 방식에 화가 나서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 모두의 공이다. 네로는 반항적인 학생이었다. 권력을 손에 쥐면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려고 때를 기다리던 소년이었다. 어릴 적 세네카에게 품었던 존경은

시간이 흐르며 일종의 원망과 혐오로 변해 버렸다. 세네카는 이를 받아들이고 할 말만 한 뒤 그 말이 먹히기를 바란 듯하며, 그 밖에는 네로가 그토록 갈망하던 권력을 쥐게 놓아둘 만큼 경계하지 않았다. 반면 마르쿠스는 배우기를 갈망했고, 자신과 스승 사이의 권력 관계가 바뀐 뒤에도 평생 그 자세를 잃지 않았다.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에 따르면 그는 언제나 입맞춤으로 유니우스를 맞았고, 자기 참모 누구보다 먼저 그를 예우했다. 그는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조언을 구했고, 스승을 진심으로 우러러 스스로를 그의 '제자'로 여겼다. 루스티쿠스는 비천한 제자를 상대로도 해내는 스승이 드문 일을 해냈다. 그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가 닿았다. 플루타르코스는 훗날 많은 정치가가 남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방편으로 다스리기를 원한다고 말하게 된다. 마르쿠스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든 것은 아마도, 황제로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지녔는데도 루스티쿠스 같은 조언자이자 철학자를 자신보다 위에 둔 듯하다는 점일 것이다. 그토록 많은 통치자가 타락했는데 마르쿠스는 어떻게 선한 채로 남았을까. 루스티쿠스처럼 지혜로운 연장자와의 관계, 그리고 그에 대한 존중이 그 답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

어법

- **From Junius, Marcus Aurelius learned all that Seneca was supposed to but failed to impart to Nero** : all that = ~한 모든 것(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 was supposed to와 failed to가 동사 impart 하나를 함께 씀(앞의 to 뒤에 impart가 생략된 대부정사). be supposed to = ~하기로 되어 있다.
- **Nero had been attached to Seneca as a teenager, after the death of his father** : had been p.p. = 과거완료 수동(마르쿠스 이야기보다 앞선 일). be attached to = ~에게 붙여지다, 맡겨지다. as a teenager = 10대일 때.
- **In 161 AD, when Marcus became emperor, Junius was drawn into the role of magistrate and advisor. He, like Seneca, would go on to serve as consul** : when절이 앞의 시점을 다시 풀어 줌. be drawn into = ~로 끌려 들어가다. 관직명 emperor · consul은 보어 자리나 as 뒤에서 관사 없이 씀. like Seneca = 삽입(세네카처럼).
- **It's a credit to both of them that Marcus was able to say he never became so angry with Junius's criticism or methods that he did something he later regretted**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be a credit to = ~의 공이다.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여기서는 never로 부정). something (that) he later regrette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 **Nero had been a truculent student, a boy who was biding his time so he could do whatever he wanted when he got his power** : a boy ~ = a truculent student의 동격. bide one's time = 때를 기다리다. so (that) S could = ~하려고(목적). whatever = ~하는 것은 무엇이든.
- **The respect he had had for Seneca when he was young transmogrified with time into a kind of resentment and disgust** : The respect (that) he had had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had had = 과거완료(앞의 had는 조동사, 뒤의 had는 본동사). 긴 주어 뒤 동사 transmogrified. transmogrify into = (기이하게) ~로 변하다.
- **Seneca seemed to be willing to go along with this, to say his piece and hope it landed, and was otherwise unalarmed enough to allow Nero to get that power he so craved** : seemed와 was가 주어 Seneca의 동사로 병렬. to say ~ and hope = go along with를 풀어 쓴 to부정사. 형용사 + enough to V = ~할 만큼 …한. allow + O + to V. that power (that) he so craved = 관계대명사 생략.
- **Marcus, on the other hand, was eager to learn and remained so for the rest of his days** : on the other hand = 반면에(네로와 대비). remained so = remained eager to learn(so가 앞 형용사구를 받음). for the rest of one's days = 평생.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impart	전하다, 가르치다	convey	withhold
parallel (n.)	평행, 닮은 점	similarity	contrast
magistrate	행정관	official	—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upil	제자	student	teacher
reconcile (v.)	화해하다	make up	quarrel
regret (v.)	후회하다	rue	—
truculent	반항적인, 사나운	defiant	docile
bide one's time	때를 기다리다	wait	—
resentment	원망	bitterness	gratitude
crave	갈망하다	long for	—
eager	열망하는	keen	reluctant
revere	우러르다	venerate	despise
exemption	면제	immunity	obligation
deference	존중, 따름	respect	disrespect

내용 일치 마르쿠스 = 세네카가 네로에게 전하지 못한 것을 유니우스에게서 배움 · 네로 = 아버지를 여읜 뒤 10대에 세네카에게 / 마르쿠스 = 어머니를 여읜 뒤 스물다섯 살에 유니우스와 공부 시작 · 161 AD 마르쿠스 즉위 → 유니우스 = 행정관이자 조언자 · 훗날 집정관(세네카처럼) ·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한 '듯함' · 자주 화가 났지만 늘 화해 · 후회할 일을 한 적 없음 · 네로 = 반항적, 존경 → 원망과 혐오 · 입맞춤과 예우의 출처 =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 · 스스로를 '제자'로 여김 · 플루타르코스 = 남의 다스림을 피하려 다스리는 정치가들 · 마르쿠스가 특별한 까닭 = '아마도' 조언자를 자기 위에 둔 '듯한' 점. **지칭** 186쪽 ¶2 his father = Nero의 아버지, his mother = Marcus의 어머니, He(like Seneca) = Junius / ¶3 he(often upset) = Marcus / ¶4 he(had had) = Nero, this = 존경이 원망으로 변한 일 / ¶5 him(honored him) = Junius, He reached = Rusticus / 187쪽 첫 줄 himself = Marcus, it(a lot of it) = 마르쿠스가 선하게 남은 까닭.

> **한 줄 요약** 세네카가 네로에게 전하지 못한 것을 마르쿠스는 유니우스에게서 배웠다.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하는 스승과 그를 자기보다 위에 둔 제자의 관계가 마르쿠스를 선하게 지켰다.

25-4 도시 장관 루스티쿠스, 충돌로 가는 길 187쪽 ¶1 ~ 188쪽 첫 줄

원문 위치 원서 187쪽 ¶1 ~ 188쪽 첫 줄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둘째 문장	In 162 AD, he served his second term as consul (almost thirty years after his first)	숫자 — 서답형 · 일치 후보
★	¶1 셋째 문장	For five years, he was urban prefect, essentially the mayor of Rome	숫자 — 서답형 1순위
▲	¶1 넷째 문장	Given the vast corruption that had been endemic in Rome	given = ~을 고려하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다섯째 문장	By all accounts, he acquitted himself honorably.	내용 일치 — 반전 후보(부패)
◆	¶2 첫 문장	on a collision course with an event	밑줄 의미 · 지칭: It = 도시 장관 자리
★	¶2 둘째 문장	In 165 AD, a seemingly minor court case	숫자 — 서답형 후보
★	¶2 셋째 문장	a Cynic philosopher named Crescens	인물 — True/False 후보(스토아 아님)
▲	¶2 넷째 문장	Denounced by Crescens, who accused these Christians of being atheists, Justin and six of his students were charged	수동 분사구문 / accuse A of B
★	¶3 첫 문장	studied under a Stoic teacher in Samaria	내용 일치 후보
▲	¶3 둘째 문장	he may well have been familiar with	may well have p.p.(추측)
★	¶3 넷째 문장	Seneca's brother had fairly judged and ... freed Saint Paul in Corinth	인물 · 장소 — 18장 연결
◆	¶4 첫 문장	Rusticus was not simply a pen-and-ink philosopher	밑줄 의미 1순위: 법을 집행하는 관리
◆	¶4 일곱째 문장	a little lost in the sway of his own power	밑줄 의미: 권력에 휩쓸림(perhaps)
★	¶5 첫 문장	In her 1939 novel ... Naomi Mitchison ... Nausiphanes	숫자 · 인물
◆	¶6	We think we are doing the right thing.	요지: 옳다고 믿으며 끔찍한 일을 함
★	¶7 첫 문장	recorded in The Acts of Justin	출처

내용

마르쿠스가 황제가 되자마자 유니우스는 나라를 위한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다. 서기 162년에는 두 번째 집정관 임기를 지냈다(첫 임기 뒤 거의 30년 만이었다). 5년 동안은 사실상 로마 시장인 도시 장관으로서 경찰 · 법 집행 · 공공 건설 · 도시의 식량 공급을 감독했다. 로마에 뿌리 깊이 퍼져 있던 엄청난 부패를 생각하면 이는 막중한 책임과 신뢰가 걸린 자리였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는 명예롭게 직무를 해냈다. 그러나 이 자리는 불행히도 역사 대부분에 걸쳐 그의 유산을 규정하게 될 사건과 그를 부딪치게 만들었다. 서기 165년, 겉보기에는 사소한 재판 하나가 유니우스의 책상에 올라왔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라는 그리스도교 철학자와 크레스켄스라는 견유학파 철학자가 거리로까지 번진 모종의 험악한 분쟁에 휘말린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몰아세운 크레스켄스의 고발로 유스티누스와 그의 제자 여섯 명이 기소되어 심문을 받게 되었다. 사실 유스티누스는 사마리아에서 스토아 스승 밑에서 공부했지만, 막 성장하던 그리스도교 신앙을 택해 그 학파를 떠난 사람이었다. 그의 글 다수는 스토아와 그리스도인의 닮은 점을 떠올리게 하며, 그는 유니우스의 철학 저작에도 익숙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스토아 재판관에게서 유리한 판결을 기대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다.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그는 한 세기 전 세네카의 형제가 코린토스에서 성 바울을 공정하게 재판해 풀어 준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곳은 전혀 다른 시대의 로마였고, 루스티쿠스는 그저 펜과 잉크의 철학자가 아니었다. 그의 일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신들을, 로마 국가의 우위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그것은 미친 짓이고 질서를 어지럽히며 위험한 일이었다. 법을 집행하는 것이 루스티쿠스의 일 아니었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는 것이 그의 일 아니었던가. 그리고 아마도 마르쿠스가 전선에 나가 있고 그를 견제할 사람이 없는 동안, 루스티쿠스는 자기 권력의 위세에 조금 휩쓸렸을 것이다. 파시즘이 유럽의 종교적 소수자들을 짓밟던 때에 쓰인, 고대 로마의 그리스도교를 다룬 1939년 소설에서 나오미 미치슨은 스토아 철학자 나우시파네스를 내세워 스토아와 그리스도인의 이 충돌을 설명하게 한다. 그의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것은 로마 국가에 맞섰기 때문이다. 로마인은 신이 다르다는 데에는 신경 쓰지 않았고, 그들의 신은 개인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것일 뿐이었기에(또는 그렇게 되어 버렸기에) 종교 문제에서는 매우 관대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박해했고 박해해야만 했으며, 마찬가지로 용기 있는 모든 이에게 공격받아야만 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현상 유지를 지킨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른다. 재판의 경과와 너무도 현대적인 그 기류는 『유스티누스 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루스티쿠스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유스티누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한다. 그대는 그리스도인인가?

어법

- **In 162 AD, he served his second term as consul (almost thirty years after his first)** : serve a term as ~ = ~로서 임기를 지내다. his first (term) = 명사 생략. almost thirty years after ~ = ~보다 거의 30년 뒤(차이 + after).
- **For five years, he was urban prefect, essentially the mayor of Rome, supervising its police, legal enforcement, public works, and the city's food supply** : essentially the mayor of Rome = urban prefect의 동격(사실상 ~). supervising ~ = 덧붙여 설명하는 분사구문, 목적어 넷이 병렬.
- **Given the vast corruption that had been endemic in Rome, this was a position of immense responsibility and trust** : Given = ~을 고려하면(전치사처럼 쓰임). had been endemic = 과거완료(그 전부터 계속 만연해 있었음). a position of + 추상명사 = ~가 걸린 자리.
- **It would also put Junius on a collision course with an event that would, unfortunately, define his legacy for most of history** : It = 앞의 도시 장관 자리.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그 뒤에 ~하게 됨). that = 주격 관계대명사, unfortunately = 삽입 부사.
- **Denounced by Crescens, who accused these Christians of being atheists, Justin and six of his students were charged and brought in to face questioning** : Denounced ~ = 수동의 분사구문(Being 생략, 의미상 주어 = Justin and six of his students). accuse A of B(-ing) = A를 B로 고발하다. were charged and (were) brought 병렬.
- **Many of Justin's writings would evoke similarities between the Stoics and the Christians and he may well have been familiar with Junius's own philosophical work** : may well have p.p. = ~했을 가능성이 크다(과거에 대한 추측, 단정 아님). be familiar with = ~에 익숙하다.
- **As a devout Christian, he knew that a century before, Seneca's brother had fairly judged ... and freed Saint Paul in Corinth** : As = ~로서(자격). a century before = 그보다 한 세기 전(과거 기준이라 before). had judged and freed = 과거완료 병렬. 원서에는 and가 두 번 찍혀 있다(원서 오식 — and 하나로 읽음).
- **And, perhaps, with Marcus away at the front and no one to check him, Rusticus was a little lost in the sway of his own power** : with + O + 보어 = ~한 채로(부대 상황): with Marcus (being) away / (with) no one to check him. perhaps = 저자의 추측. be lost in = ~에 빠져 있다.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term	임기	tenure	—
supervise	감독하다	oversee	—
corruption	부패	dishonesty	integrity
endemic	만연한, 고질적인	widespread	rare
immense	막대한	enormous	tiny
acquit oneself	(맡은 일을) 해내다	perform	—
collision	충돌	clash	—
denounce	고발하다, 비난하다	accuse	praise
burgeoning	급성장하는	flourishing	declining
devout	독실한	pious	impious
supremacy	우위	dominance	inferiority
disruptive	질서를 어지럽히는	unruly	orderly
persecute	박해하다	oppress	protect
tolerant	관대한	open-minded	intolerant

내용 일치 162 AD = 두 번째 집정관(첫 임기 뒤 '거의' 30년) · 도시 장관 5년 = 사실상 로마 시장(경찰 · 법 집행 · 공공 건설 · 식량 공급) · 명예롭게 해냄(모든 기록) · 165 AD = 겉보기에 사소한 재판 · 유스티누스 = 그리스도교 철학자 / 크레스켄스 = 견유학파 철학자, 무신론자라고 고발 · 기소 = 유스티누스와 제자 여섯 · 사마리아의 스토아 스승 → 그리스도교 · 유니우스의 저작에 익숙했을 '가능성이 큼'(may well) · 유리한 판결을 기대 · 한 세기 전 세네카의 형제가 코린토스에서 성 바울을 풀어줌 · 권력에 휩쓸렸을 것(perhaps) · 1939년 나오미 미치슨의 소설 · 나우시파네스 · 기록 = 『유스티누스 행전』. **밑줄 의미** not simply a pen-and-ink philosopher = 글로 사는 학자가 아니라 평화와 법을 지키는 관리(185쪽 ¶4의 표현을 되받음) / a little lost in the sway of his own power = 견제가 없자 권력의 위세에 휩쓸림 / We think we are doing the right thing = 옳다고 믿는 마음이 끔찍한 일을 낳음 / 187쪽 ¶2 It = 도시 장관 자리.

> **한 줄 요약** 도시 장관으로 명예롭게 일하던 루스티쿠스는 165년 유스티누스 재판을 맡았고, 평화와 법을 지키는 관리로서 로마의 신을 거부한 그리스도인들과 부딪치는 길에 들어섰다.

25-5 재판정의 경멸, 뒤바뀐 역할 188쪽 ¶1 ~ 189쪽 ¶1

원문 위치 원서 188쪽 ¶1 ~ 189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8쪽 ¶1 셋째 문장	That power is not Rusticus, but the empire he represents	지칭: That power = the powers that be
▲	¶1 넷째 문장	seems to take personally Justin's claim	take + 부사 + 긴 목적어 / 추측 seem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다섯째 문장	wretch that you are	밑줄 의미: 경멸 — 대면이 통제를 벗어남
★	¶2	contempt goeth before injustices and moral failings	주장 · 요지 1순위
★	¶3 첫 문장	On Clemency to Nero in 55–56 AD	숫자 · 작품 — 18장 연결
▲	¶3 셋째 문장	how the decisions that the powerful make in regard to the powerless define who they are	how절 안의 관계절 / the + 형용사
▲	¶3 일곱째 문장	He could have been allowed to go free	could have been p.p.
★	¶4	He deserved mercy. Most everyone does.	빈칸 · 주장 후보 / does = deserves
◆	¶5 첫 문장	too frustrated to give it	지칭: it = mercy / too ~ to
★	¶7 첫 문장	to show oneself ready to be reconciled ... meet them halfway	186쪽 인용 재등장 — 통합 사고 후보
▲	¶7 셋째 문장	How much better would Rusticus have come off if he had managed to muster it?	가정법 과거완료 의문문
★	¶8 첫 문장	a chance to repent, to submit to the law and go on his way	내용 일치 · 삽입 문항 재료
★	¶9 첫 문장	the same choice offered to Agrippinus, to Cato, to Thrasea, to Helvidius	인물 — 17 · 13 · 21 · 22장 연결
◆	¶9 둘째 문장	Go along to get along.	밑줄 의미: 따르기만 하면 무사하다
◆	¶9 넷째 문장	the roles were reversed	밑줄 의미 1순위: 박해하는 쪽이 된 스토아
▲	189쪽 ¶1 둘째 문장	Let those who have refused ... be scourged and led away	let + O + be p.p.

내용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유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믿음이 권력자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인정한다. 그 권력은 루스티쿠스가 아니라 그가 대변하는 제국이다. 그런데도 루스티쿠스는 '오류를 굳게 붙들고 있는' 쪽은 로마인이라는 유스티누스의 주장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이 가련한 자여, 그대는 그[그리스도교] 교리를 인정한다는 말인가?" 루스티쿠스가 다그치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대면은 통제를 벗어난다. 교만이 몰락에 앞서듯, 경멸은 불의와 도덕적 실패에 앞선다. 세네카는 서기 55~56년에 유명한 글 『관용에 대하여』를 써서 네로에게 바쳤다. 네로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루스티쿠스는 아마 세네카의 철학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그 글의 요지, 곧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 대해 내리는 결정이 그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는 생각은 절실하게 들어맞았다. 여기서 루스티쿠스는 로마 법체계의 무게 전체를 쥐고 있었다. 유스티누스는 널리 받아들여진 믿음에 반대하는 한 사람, 보잘것없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의 본보기는 별 영향이 없었다. 그를 풀어 줄 수도 있었다. 그는 자비를 받을 만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나 루스티쿠스는 너무 짜증이 나서 자비를 베풀 수

없었다. 그는 유스티누스의 신앙, 로마 체제가 용납하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그 확고한 믿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애초에 유스티누스가 루스티쿠스 앞 법정에 앉아 있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들어 보라. 채찍질을 당하고 목이 베인다면 그대가 하늘로 올라가리라고 확신하는가?" 루스티쿠스의 물음에 유스티누스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선하게 산 모든 이를 위해 하느님의 은총이 온 세상의 끝까지 쌓여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마르쿠스는 루스티쿠스에게서 '화를 내고 내게 잘못한 사람들과 기꺼이 화해하고, 그들이 돌아설 뜻을 보이면 곧바로 절반쯤 마중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다. 유스티누스 앞에서 그 준비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 루스티쿠스는 얼마나 더 나아 보였을까. 그는 유스티누스에게 뉘우치고 법에 복종한 뒤 제 갈 길을 갈 기회를 주었다. 유스티누스는 진심일 필요도 없었다. 다른 모든 로마인에게 기대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가자. 그것은 필요하고 급한 일이다. 그러니 모여서 한마음으로 신들에게 제물을 바쳐라." 루스티쿠스의 말이다. 그러지 않으면 감히 불경을 저지른 로마인, 제국이 필요하다고 믿은 신들의 은총을 내친 로마인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된다. 그는 유스티누스에게 아그리피누스 · 카토 · 트라세아 · 헬비디우스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은 선택을 내밀고 있었다. 무사하려면 따르라. 트라세아도 그 선택을 마주했고 구제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루스티쿠스의 할아버지 아룰레누스의 도움마저 거절했다. 이제 여러 해가 지나 역할이 뒤바뀌었다. 폭군이 스토아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스토아가 그리스도인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그리스도인이 용감한 쪽이 될 것이었다.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참된 예배에서 거짓 예배로 굽히지 않는다." 유스티누스는 이렇게 답했고, 그로써 타협하고 사는 대신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죽기를 택했다. 국가의 막대한 권력을 손에 쥔 루스티쿠스는 그 권력을 쓰기로 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기를, 그리고 황제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한 자들은 채찍질을 당한 뒤 끌려 나가 법의 판결에 따라 사형에 처해지게 하라."

어법

- **Yes, I am, he says, admitting that he knows his beliefs are seen as a threat by the powers that be** : admitting ~ = 동시 동작 분사구문. be seen as = ~로 여겨지다(수동). the powers that be = 권력자들, 당국(옛 표현이 굳은 말 — be는 원형).
- **As pride goeth before the fall, contempt goeth before injustices and moral failings** : As ~, S + V = ~하듯 …하다(비교의 as). goeth = goes의 옛 형태(성경 문체를 빌림). go before = ~에 앞서다.
- **the thrust of that essay—about how the decisions that the powerful make in regard to the powerless define who they are—was desperately relevant** : 주어 the thrust와 동사 was 사이에 대시 삽입. how절 안: 주어 the decisions + 관계절 that the powerful make ~ + 동사 define. the powerful / the powerless = 힘 있는 자들 / 힘없는 자들(the + 형용사). who they are = 간접의문문.
- **He could have been allowed to go free. He deserved mercy. Most everyone does.** : could have been p.p. = ~될 수도 있었다(실제로는 그러지 않음). does = deserves mercy를 받는 대동사. most everyone = almost everyone(구어).
- **Rusticus was too frustrated to give it** : too ~ to V = 너무 ~해서 …할 수 없다. it = 앞 문장의 mercy.
- **How much better would Rusticus have come off if he had managed to muster it?** : 가정법 과거완료: if + had p.p., would have p.p.(과거 사실의 반대). 의문사구 how much better가 앞으로 나와 would가 주어 앞으로. come off = (어떤 인상으로) 비치다. it = that readiness.
- **He gave Justin a chance to repent, to submit to the law and go on his way** : give + IO + DO. a chance를 꾸미는 to부정사가 to repent, to submit ~ and go로 이어짐. go on one's way = 제 갈 길을 가다.
- **"Let those who have refused to sacrifice to the gods and to obey the command of the emperor," he ordered, "be scourged and led away to suffer capital punishment"** : let + O + be p.p.(수동 원형) = ~가 … 되게 하라. 목적어 those who ~가 길고 he ordered가 끼어 O와 be가 멀리 떨어졌다. scourged와 led away 병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admit	인정하다	acknowledge	deny
wretch	가련한 자, 비열한 자	scoundrel	—
contempt	경멸	scorn	respect
clemency	관용, 자비	mercy	severity
relevant	들어맞는, 관련 있는	pertinent	irrelevant
mercy	자비	leniency	cruelty
baffled	당황한, 이해하지 못한	puzzled	—
countenance (v.)	용납하다	tolerate	forbid
muster	(용기 등을) 끌어내다	summon	—
repent	뉘우치다	regret	—
impiety	불경	irreverence	piety
spurn	내치다	reject	welcome
reprieve	(처벌의) 유예, 구제	pardon	—
obeisance	복종, 경의	submission	defiance

내용 일치 유스티누스 =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정 · 위협으로 여기는 권력 = 루스티쿠스가 아니라 제국 ·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인 '듯함' · 경멸은 불의와 도덕적 실패에 앞선다 · 『관용에 대하여』 = 세네카가 55~56 AD에 네로에게 · 루스티쿠스가 세네카 철학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likely) · 자비를 베풀지 못한 이유 = 너무 짜증이 남 · 마르쿠스가 배운 화해의 준비(186쪽 인용) = 유스티누스 앞에서는 없었음 · 뉘우치고 복종할 기회를 줌(진심일 필요 없음) · 같은 선택 = 아그리피누스 · 카토 · 트라세아 · 헬비디우스 · 트라세아가 거절한 도움 = 아룰레누스 · 역할이 뒤바뀜(폭군 → 스토아 / 스토아 → 그리스도인). **밑줄 의미** wretch that you are = 상대를 깔보는 말 → 경멸이 불의에 앞섬 / Go along to get along = 따르기만 하면 무사하다 / the roles were reversed = 박해받던 스토아가 이제 박해하는 쪽 / 188쪽 ¶5 it = mercy, ¶7 it(muster it) = that readiness, ¶10 the brave one = 유스티누스.

> **한 줄 요약** 유스티누스의 말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인 듯한 루스티쿠스는 자비를 베풀지 못했고, 한때 폭군이 스토아에게 내밀던 선택을 이제 스토아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내밀어 사형을 명했다.

25-6 얼룩, 더 큰 그림, 진짜 기념비 189쪽 ¶2 ~ 190쪽 ¶3

원문 위치 원서 189쪽 ¶2 ~ 190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89쪽 ¶2	In the name of Marcus Aurelius, at the order of Rusticus	내용 일치 — 누구의 이름 · 누구의 명령
◆	¶3	a stain on two otherwise flawless reputations	밑줄 의미 1순위: 흠 없던 두 명성의 얼룩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첫 문장	Even if Justin had been ..., might the Stoics instead have considered	even if + had p.p. / might have p.p.
★	¶4 첫 문장	sympatheia, which dated back to Zeno and Chrysippus	빈칸 후보 — 4장 연결
★	¶4 둘째 문장	we are all part of one large body, each with our own role	요지 1순위
▲	¶4 넷째 문장	It would have been an idea he and Rusticus had discussed countless times	would have p.p.(저자의 짐작)
◆	¶6 둘째 문장	Let me slap him on the wrist and let him go.	밑줄 의미: 가볍게 꾸짖고 풀어 줌
◆	¶6 넷째 문장	too lost in the black-and-whiteness of the legal case	밑줄 의미: 흑백 논리
★	¶6 마지막 문장	one of the most famous executions in Christian history in 165 AD	숫자
▲	¶9 둘째 문장	Just as ..., so too would this tiny case	Just as ~, so too + 도치
▲	¶10 셋째 문장	should have been at least begrudgingly respected by someone as well versed in Stoicism as	should have been p.p. / as ~ as
★	¶11 둘째 문장	All he saw was a threat to the public order, a threat to his power	빈칸 1순위
◆	¶11 ~ 190쪽 첫 줄	the same thing that had motivated a paranoid emperor	아이러니: 할아버지를 죽인 동기
◆	190쪽 ¶1	the former ... The latter	지칭: 전자 = 루스티쿠스 / 후자 = 유스티누스
★	190쪽 ¶2 첫~둘째 문장	In 168 AD ... Within two years he would be dead	숫자 — 서답형 1순위
★	190쪽 ¶2 넷째 문장	a man not given to arguments, spectacles, or sermons	서답형 단어 MODESTY의 근거

내용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름으로, 루스티쿠스의 명령에 따라 이 가엾은 사람은 끌려가 잔인하게 매질을 당하고 살갗이 찢겨 나갈 때까지 채찍질을 당한 뒤 목이 베였다. 이 일은 그것만 아니면 흠이 없었을 두 사람의 명성에 얼룩이 된다. 설령 유스티누스가 이 종교 문제에서 완전히, 반박의 여지 없이 틀렸다 해도, 스토아들은 대신 제논과 크리시포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감(sympatheia)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모두 하나의 커다란 몸의 일부이며 저마다 맡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었을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잘못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염치없고 어리석은 사람조차 그 셈법 안에 들어 있으니 그런 이들을 만나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아름답게 쓰게 된다. 그와

루스티쿠스가 셀 수 없이 많이 나누었을 생각이었을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든 100퍼센트 합의된 세상이 가능했을까. 특히 종교 문제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았을까. 이따금 나타나는 이단자의 존재가 그토록 충격적일 까닭이 무엇인가. 만약, 놀랍게도, 그 이단자가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았다면? 대부분의 사람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조차, 자기가 하는 일에 진심이었다면? 유스티누스의 재판을 맡으며 루스티쿠스는 이렇게 혼잣말을 할 수도 있었다. 좋다,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다. 가볍게 꾸짖고 보내 주자.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눈앞의 법적 사건이 지닌 흑백의 논리에 너무 빠져 있었다. 유스티누스는 로마 생활의 일상적 관행인 제사 규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이는 시민 불복종이었고 법은 분명했다. 그래서 그는 서기 165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처형 가운데 하나를 명했다. 다만 그것은 돌이켜 볼 때의 이야기다. 이 '순교'는 당시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로마는 파르티아 전쟁 한가운데 있었고, 국경에서는 게르만 부족과의 충돌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역병이 제국을 휩쓸었고 수백만 명이 죽게 된다. 법을 어긴 한 사람에 대한 사형 선고는 역사가 기억할 일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란 그런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 책 한 권을 건넨 평범한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듯, 당시에는 아마 다른 수백 건과 전혀 구별되지 않아 보였을 이 작은 사건도 그러했다. 스토아들이 노예 제도에 의문을 품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듯, 참된 종교의 자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 대의를 위해 순교하는 것,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타협을 거부하는 것은 어떤가. 루스티쿠스처럼 스토아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마지못해서라도 적어도 그것만은 존중했어야 했다. 슬프게도 그는 그러지 못했다. 그가 본 것은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편집증에 사로잡힌 황제가 루스티쿠스의 할아버지를 죽이게 만든 바로 그 동기였다. 의무에 묶인 루스티쿠스는 해야 한다고 믿은 일을 했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도 마찬가지였다.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한 탓에 전자는 남은 역사 내내 수백만 그리스도인에게 악당이 되었다. 희생자인 후자는 오늘날까지 박해받는 이들에게 영감을 준다. 서기 168년 유니우스는 도시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고, 두 해가 지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로마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잔혹한 전쟁을 치르던 중에도 마르쿠스는 시간을 내어 원로원에, 삶의 거의 절반을 가까이서 함께한 오랜 스승이자 친구에게 영예를 내리라고 명했다.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에 따르면 로마 곳곳에 루스티쿠스의 조각상이 세워졌다. 논쟁이나 구경거리나 설교가 아니라 오직 자기 성품을 닦는 일과 공적 의무에만 몸을 바친 사람을 기리는 상이었다. 그러나 루스티쿠스의 진짜 기념비는, 악명 높은 그 재판마저 가릴 만큼 빛나는 것은, 그가 길러 낸 제자, 마침내 왕이 된 스토아의 삶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법

- **Even if Justin had been totally and indisputably wrong on this matter of religion, might the Stoics instead have considered that idea of sympatheia, which dated back to Zeno and Chrysippus?** : even if + had p.p. = 설령 ~했다 하더라도(가정법 과거완료). might + S + have p.p.? =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과거에 대한 아쉬움). date back to = ~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 **How could they have forgotten that we are all part of one large body, each with our own role, our own part to play?** : could have p.p. 의문문 =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비판). that절은 일반적 진리라서 현재 시제(are). each with ~ = 덧붙인 독립 구. our own part to play = 명사를 꾸미는 to부정사.
- **Marcus Aurelius would write beautifully that even the misinformed, even the selfish, even the shameless and stupid fit in that equation, and that we shouldn't be surprised when we meet them** : write의 목적어 that절 두 개가 and로 병렬. the + 형용사 = ~한 사람들(복수 → fit). would = 과거에서 본 미래.
- **Just as the unremarkable decision to hand Marcus Aurelius a book would have outsize consequences, so too would this tiny case** : Just as A, so (too) B = A이듯 B도 그렇다. so too 뒤 도치(would + 주어), would 뒤 have outsize consequences 생략. hand + IO + DO.
- **This should have been at least begrudgingly respected by someone as well versed in Stoicism as Rusticus** : should have been p.p. = ~되었어야 했다(실제로는 그러지 않음). as well versed in ~ as = ~만큼 …에 정통한. at least begrudgingly = 적어도 마지못해서라도.

- **It was, ironically, the same thing that had motivated a paranoid emperor to kill Rusticus's grandfather** : the same thing that = ~한 바로 그것(주격 관계대명사). had motivated = 과거완료(재판보다 앞선 일). motivate + O + to V = O가 ~하게 만들다.
- **For the former's failure to see a bigger picture, he would be a villain to millions of Christians for the rest of history. The latter, the victim, inspires the persecuted to this day.** : the former = 전자(루스티쿠스) / the latter = 후자(유스티누스). for = ~ 때문에(이유). the persecuted = 박해받는 사람들. to this day = 오늘날까지(그래서 현재 시제 inspires).
- **he took the time to order the Senate to confer honors over his longtime teacher and friend, with whom he'd closely spent nearly half of his life** : take the time to V = 시간을 내어 ~하다. order + O + to V. 전치사 + 관계대명사 with whom(spend time with ~에서 with가 앞으로). he'd = he had(과거완료).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stain	얼룩, 오점	blemish	—
flawless	흠 없는	impeccable	flawed
indisputably	반박의 여지 없이	undeniably	questionably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avoidable
heretic	이단자	dissenter	—
comply with	~을 따르다	obey	defy
disobedience	불복종	defiance	obedience
in retrospect	돌이켜 보면	looking back	—
ravage	황폐하게 하다	devastate	—
outsize	엄청나게 큰	enormous	tiny
inconceivable	생각할 수 없는	unthinkable	conceivable
begrudgingly	마지못해	reluctantly	willingly
paranoid	편집증적인	suspicious	trusting
confer	(영예를) 수여하다	bestow	withhold

내용 일치 처형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름으로, 루스티쿠스의 명령으로 · 두 사람의 명성에 얼룩 · sympatheia = 제논과 크리시포스까지 거슬러 감 · 하나의 커다란 몸 · 마르쿠스와 루스티쿠스가 수없이 나누었을 생각(저자의 짐작) · 가볍게 꾸짖고 보내 줄 수도 있었음(might have — 가정) · 흑백 논리 · 165 AD 처형 · 당시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음(파르티아 전쟁 · 게르만 부족 · 역병) · 노예 제도 · 종교의 자유 = 생각할 수 없던 개념 · 본 것 = 공공질서와 자기 권력에 대한 위협 · 할아버지를 죽인 황제의 동기와 같음 · 168 AD 도시 장관에서 물러남 · 두 해 안에 죽음 · 원로원에 영예를 명함 · 조각상(『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 **밑줄 의미** a stain on two otherwise flawless reputations = 문맥상 루스티쿠스와, 그 이름으로 처형이 이루어진 마르쿠스의 명성에 남은 오점(26장 199쪽 ¶5도 "a stain on both him and Rusticus") / slap him on the wrist = 가벼운 꾸중으로 끝냄 / the real monument = 조각상이 아니라 그가 길러 낸 제자의 삶 / 190쪽 ¶1 the former = 루스티쿠스, the latter = 유스티누스.

> **한 줄 요약** 흑백의 법 논리 속에서 공공질서와 자기 권력에 대한 위협만 본 루스티쿠스의 판결은 두 사람의 명성에 얼룩을 남겼지만, 그의 진짜 기념비는 그가 길러 낸 철인 왕의 삶이었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Lives of the Stoics [Chapter 25 RUSTICUS]

범위	Junius Rusticus the Dutiful (원서 PDF 184~190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t would have been understandable if Junius had turned his back on such a violent age and buried himself in books and theories. One ancient writer reports that part of him would gladly have remained at home as a simple scholar of pen and ink, working out his ideas undisturbed. Yet a strong feeling of duty, shaped by his grandfather's example just as Cato's once had been, pulled him toward a larger calling. His choice ought to unsettle anyone blessed with talent. We owe it to ourselves, and to the world as well, to take an active part in the short time we are given. Hiding inside ideas alone is not an option; each of us has to give something back.

① Talented people should use their gifts to engage actively with the world.
② Scholars should stay away from politics to protect their ideas.
③ Family tradition matters less than personal freedom.
④ A quiet life of study is the best way to serve others.
⑤ Violent times call for people to withdraw into books.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Looking back, we remember Justin's death well. At the time, however, this so-called martyrdom drew almost no notice. Rome was busy fighting the Parthian War, trouble with Germanic tribes was brewing along the frontier, and a plague was sweeping across the empire, one that would eventually kill millions. Against such a background, putting a single lawbreaker to death hardly looked like the sort of event that history would bother to record. Yet history often works this way. The ordinary act of handing a book to Marcus Aurelius led to enormous results, and so would this small case, which at the moment probably seemed no different from hundreds of others.

① Why Rome Ignored Its Many Wars
② A Plague That Changed the Empire
③ Small Events, Large Consequences
④ How Marcus Aurelius Chose His Books
⑤ The Parthian War and Its Heroes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Suppose Justin had been completely and undeniably mistaken about religion. Even then, the Stoics could have turned to sympatheia, an idea as old as Zeno and Chrysippus: all of us belong to one great body, and each has a role of his own. Marcus would later write that even the ignorant, the selfish, and the shameless have their place in that whole, so meeting such people should never surprise us. He and Rusticus had probably talked this over many times. Could the world ever reach total agreement on anything? Some disagreement, above all about religion, was bound to arise. And what if the dissenter knew something others did not, or was simply sincere?

① Religious disagreement should be settled by the law.
② The Stoics should have accepted dissenters as part of one shared whole.
③ Sympatheia was first proposed by Marcus Aurelius.
④ Sincere people are always right about religion.
⑤ The ignorant and the selfish must be kept out of society.

4. 밑줄 친 not simply a pen-and-ink philosoph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But Rome was now living through very different times. Rusticus, moreover, was by then not simply a pen-and-ink philosopher. Keeping the peace was his task. These Christians would not recognize the Roman gods or accept that the Roman state stood above all else. To an official, such a refusal seemed mad, disorderly, and dangerous. Was it not his duty to uphold the laws and to stop such trouble before it spread? And perhaps, with Marcus off fighting at the front and nobody to hold him in check, Rusticus had been carried away, if only a little, by the power he held.

① He had stopped reading and writing philosophy altogether.
② He wrote down his judgments with pen and ink.
③ He was an official whose job was to keep order and enforce the law.
④ He was secretly on the side of the Christians.
⑤ He refused to take any part in public life.

5. 밑줄 친 slap him on the wrist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While judging Justin's case, Rusticus could have told himself: very well, this man is simply one of those people the world will always contain. I will just slap him on the wrist, then let him walk away. He did not. To him, the legal question before him looked purely black and white. Justin would not obey the rules requiring sacrifice, something Romans did as part of daily life. In Rusticus's eyes, this was open defiance of the state, and the law left no room for doubt. And so, in 165 AD, he ordered an execution that Christian history would come to count among its best known.

① have him beaten until he confessed
② force him to offer sacrifice
③ send him to the emperor for judgment
④ give him a light punishment and let him go
⑤ warn him that he would be executed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Marcus, by contrast, was hungry to learn and stayed that way all ① his life, even after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two of them had tilted. The Historia Augusta reports that ② he always welcomed Junius with a kiss and honored ③ him ahead of all others on his staff. ④ He asked for advice both privately and openly, sincerely revered his teacher, and thought of ⑤ himself as that teacher's "disciple." Rusticus achieved something that rarely happens between a teacher and a student, even a humble one: he truly got through to Marcus Aurelius.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Almost as soon as Marcus took the throne, Junius was handed important posts in public service. In 162 AD he became consul for a second time, nearly three decades after he had first held the office. He then spent five years as urban prefect—in effect, the mayor of Rome—overseeing the city's police, the enforcement of its laws, its public building projects, and its food supply. Because corruption had long been widespread in Rome, the post called for enormous trust and responsibility. According to every report, he carried out his duties with honor.

① 루스티쿠스는 마르쿠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두 번째 집정관을 지냈다.
② 루스티쿠스가 처음 집정관이 된 것은 162년이었다.
③ 루스티쿠스는 도시 장관으로 10년 동안 일했다.
④ 도시 장관은 로마의 경찰과 식량 공급까지 감독하는 자리였다.
⑤ 루스티쿠스는 도시 장관 시절 부패에 연루되었다는 비난을 받았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The post also set Junius on a path toward an event that, sadly, would shape the way history remembered him. It began in 165 AD, when a case that looked trivial reached his court. Justin Martyr, a Christian thinker, and Crescens, a Cynic philosopher, had fallen into a bitter quarrel that spilled onto the streets. After Crescens condemned the Christians as atheists, Justin was put on trial along with six students of his. Earlier in life, Justin had learned from a Stoic master in Samaria before leaving for the rising Christian faith. Quite reasonably, he expected his Stoic judge to rule in his favor, for he was aware that a hundred years earlier Seneca's brother had treated Saint Paul fairly in Corinth and released him.

① 유스티누스 사건은 165년에 루스티쿠스의 법정에 올라왔다.
② 크레스켄스는 견유학파 철학자였다.
③ 유스티누스는 제자 여섯 명과 함께 기소되었다.
④ 유스티누스는 사마리아에서 스토아 스승에게 배운 적이 있다.
⑤ 유스티누스는 스토아 재판관에게서 불리한 판결을 받으리라고 예상했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Unlike Seneca, Junius appears to have been ready ① telling his pupil hard truths. Marcus admits that he was often annoyed with Rusticus, yet the two always made peace. It speaks well of both men that Marcus never grew so angry at his teacher's criticism ② that he did anything he would later regret. Nero, on the other hand, had been a sullen pupil, a boy ③ waiting for the day when he could do as he pleased with power in his hands. The respect he ④ had felt for Seneca in his youth slowly turned into bitterness and disgust. Seneca seemed willing to accept this, saying his piece and hoping it ⑤ would land, and he stayed calm enough to let Nero gain the power he craved.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168 AD, Junius gave up his post as urban prefect, and within two years he was dead. Although Marcus was fighting a fierce war far from Rome, he made time to instruct the Senate to grant honors to the man he had long called teacher and friend, a man with (A) [whom / which] he had shared almost half his life. According to the Historia Augusta, statues of Rusticus were (B) [placing / placed] across the city, (C) [honoring / honored] someone devoted not to debates, shows, or preaching but only to shaping his character and serving the public. Still, the truest memorial to Rusticus, brighter even than his notorious trial, would be the life of the pupil he had trained—the Stoic who at last became king.

	(A)	(B)	(C)
①	which	placing	honored
②	whom	placed	honoring
③	whom	placing	honoring
④	which	placed	honoring
⑤	whom	placed	honor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In 55–56 AD, Seneca had written On Clemency, his famous essay, for Nero. Given how Nero ended up, Rusticus probably did not ① admire Seneca's thought very much. Even so, the essay's main point—that the way the powerful treat the powerless reveals who they really are—was deeply ② relevant here. Rusticus held the entire weight of Roman law in his hands, while Justin was one ordinary man ③ disagreeing with a widely shared belief. His example counted for very little, and he could easily have been set free. He ④ deserved mercy, as nearly everyone does. But Rusticus was far too frustrated to show it, ⑤ delighted by Justin's firm faith in something the Roman system would not allow.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The Stoics never thought to challenge slavery, and in the same way, real freedom of religion was an idea beyond anything they could imagine. Still, consider a man who would die for a single cause and would not bend even when threatened with death. Surely someone as well trained in Stoicism as Rusticus should have respected that, even if only grudgingly. Sadly, he could not. All he could see in Justin was _____. The irony is bitter: this was exactly what had once driven a paranoid emperor to put Rusticus's own grandfather to death.

① a brave man worthy of admiration
② a danger to public order and to his own authority
③ a former student of the Stoics
④ a sincere believer who knew something he did not
⑤ a harmless thinker who would soon change his mind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That duty was a simple one: getting straight to the point, Rusticus ordered the accused to gather and sacrifice to the gods together.

Rusticus offered Justin a way out: repent, obey the law, and walk away. (①) Justin did not even need to mean it; he only had to perform the duty expected of every Roman. (②) Refusing would bring the same penalty as any act of impiety, any scorning of the gods whose goodwill the empire believed it depended on. (③) It was the very choice once put before Agrippinus, Cato, Thrasea, and Helvidius: give in and be left in peace. (④) Thrasea had faced it and turned down a chance at rescue, even help from Arulenus, the grandfather of Rusticus. (⑤) Many years on, their roles had been reversed: it was now a Stoic, not a tyrant, demanding submission from a Christian. This time it was the Christian who showed courage, declaring that no sensible person abandons true worship for false.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The Acts of Justin preserves the record of the trial, whose undertones feel all too modern. ① Rusticus wastes no time, demanding that Justin explain how he lives and whether he is a Christian. ② Justin says that he is, admitting that the authorities regard his beliefs as a danger—not Rusticus himself so much as the empire he serves. ③ Marcus had also learned from Rusticus to read with great care rather than settle for a quick glance from above. ④ Rusticus, however, seems to take it personally when Justin insists that the Romans are the ones clinging to error, and the exchange soon spins out of control. ⑤ Later Rusticus asks whether Justin truly believes he would rise to heaven if he were whipped and beheaded, and Justin replies that he hopes so.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66 AD, Thrasea faced a death sentence that was all but certain, and a young man, Arulenus Rusticus, offered to speak out against it and rescue him.

(A) Arulenus later raised a son, and that son in turn had a son who, on the whole, showed Thrasea's faith to be justified. This grandson would also show, it seems, how frequently history turns on small events.

(B) Thrasea turned him down, saying that for himself it was already too late. Yet the brave young man, he said, still had time to consider what sort of politician he would become.

(C) That grandson, Junius Rusticus, came into the world around 100 AD, fewer than ten years after his grandfather had been murdered. He would grow up to be the teacher who led Marcus Aurelius into Stoicism and so helped create the first philosopher king the world had known.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Plutarch would later remark that many politicians sought power as a way of escaping the rule of others; they wanted to govern precisely so that nobody could govern them. Perhaps what made Marcus stand out was that he appeared to rank an advisor and philosopher such as Rusticus above himself, even though as emperor he held almost unlimited power. Why did Marcus stay good when so many other rulers went bad? Much of the answer lies in his close bond with Rusticus, a wise and older man, and in his willingness to defer to him.

→ While many rulers sought power to (A) _____ the rule of others, Marcus stayed good largely because he (B) _____ a wise advisor above himself.

① accept ..... ignored
② share ..... feared
③ accept ..... placed
④ escape ..... placed
⑤ escape ..... ignored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Junius Rusticus came into the world around 100 AD. In his early thirties, Junius was consul under Hadrian. He gave young Marcus Aurelius his copy of Epictetus's sayings. Once Marcus was emperor, Junius served five years as urban prefect. In 165 AD he judged Justin Martyr, a Christian denounced by Crescens, a Cynic philosopher. In 168 AD, he stepped down from that post and died soon after.

<QUIZ>

(1) Who received Junius's copy of Epictetus?
Answer for (1): _____

(2) Around what year was Junius born?
Answer for (2): _____

(3) Under whom was Junius consul in his early thirties?
Answer for (3): _____

(4) How many years was Junius urban prefect?
Answer for (4): _____

(5) Whom did Junius judge in 165 AD?
Answer for (5): _____

(6) True or false: Crescens was a Stoic.
Answer for (6): _____

(7) In what year did Junius step down as urban prefect?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Arrian	N. 66 AD
B. 165 AD	O. 100 AD
C. Crescens	P. 170 AD
D. Hadrian	Q. two
E. five	R. Thrasea
F. True	S. Justin Martyr
G. six	T. False
H. Nero	U. Plutarch
I. 161 AD	V. 162 AD
J. Epictetus	W. Cato
K. Arulenus	X. Saint Paul
L. Seneca	Y. 168 AD
M. Marcus Aurelius	Z. Helvidius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그를 구하려던 젊은이에게는 어떤 정치가가 될지 생각할 시간이 아직 있었다. (there was time + to부정사 / 간접의문문)

02 유니우스가 이 폭력적인 세상에 등을 돌리고 싶어 했다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주어 it + for 의미상 주어 + would have p.p.)

03 이 행성에서 주어진 짧은 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의무다. (owe it to A to V · 가목적어)

04 마르쿠스의 손으로 건너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은 바로 에픽테토스 어록의 사본이었다. (It was ~ that 강조구문)

05 마르쿠스는 세네카가 네로에게 전했어야 했으나 전하지 못한 모든 것을 유니우스에게서 배웠다. (all that / 대부정사 to + 공통 동사)

06 마르쿠스는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지를 만큼 화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so ~ that + never)

07 그가 어릴 적 세네카에게 품었던 존경은 시간이 흐르며 원망으로 변했다. (had had + 관계대명사 생략)

08 크레스켄스에게 고발당한 유스티누스와 그의 제자 여섯 명은 기소되었다. (수동 분사구문(Denounced ~))

09 유스티누스는 유니우스의 철학 저작에 익숙했을 가능성이 크다. (may well have p.p.(추측))

10 루스티쿠스는 너무 짜증이 나서 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없었다. (too ~ to V)

11 그 준비를 끌어낼 수 있었다면 루스티쿠스는 얼마나 더 나아 보였을까? (가정법 과거완료 의문문)

12 책 한 권을 건넨 평범한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낳았듯, 이 작은 사건도 그러했다. (Just as ~, so too + 도치)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의 출생 · 사망 / 출신	
트라세아를 구하려 한 할아버지 / 그해	
유니우스가 만족할 수도 있었던 모습	
30대 초반 집정관 시절의 황제	
유니우스가 만난, 에픽테토스의 제자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을 추측한 현대 학자	
마르쿠스에게 건너간 책	
루스티쿠스가 마르쿠스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 곳	
마르쿠스가 황제가 된 해 / 유니우스의 역할	
입맞춤과 예우 · 조각상을 전한 기록	
두 번째 집정관 해 / 도시 장관 기간	
유스티누스 재판과 처형의 해	
유스티누스를 고발한 철학자 / 그의 학파	
함께 기소된 제자 수 / 유스티누스가 스토아를 배운 곳	
재판 기록이 남은 문헌	

항목	답
세네카가 네로에게 쓴 글 / 그 해	
나우시파네스가 나오는 소설의 작가 / 해	
같은 선택을 받았던 네 사람	
sympatheia가 거슬러 올라가는 두 사람	
도시 장관에서 물러난 해 / 그 뒤 죽기까지	

4-3. 통합 사고 문제 — 24장과 25장을 잇는 자리

문제

24장에서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의 무엇이며, 누군가 나를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면 내 마음이 그 자극에 가담한 것이니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라고 했다(179쪽 ¶1). 24장 182쪽 ¶2에 따르면 마르쿠스는 스승 유니우스 루스티쿠스에게서 에픽테토스 강의록 사본을 빌렸고, 25장에서도 루스티쿠스는 자기 서재의 에픽테토스 어록을 마르쿠스에게 건넸다(185쪽 ¶7 · 186쪽 인용). 그러나 재판정의 루스티쿠스는 '오류를 굳게 붙들고 있는' 쪽은 로마인이라는 유스티누스의 주장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인 듯하고, 너무 짜증이 나서 자비를 베풀지 못했다(188쪽 ¶1 · ¶5).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에 비추어 루스티쿠스를 화나게 한 진짜 원인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렇게 답한 근거를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24장 또는 25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에픽테토스의 눈으로 본 재판정: If Epictetus is right, it was not Justin's words themselves that upset Rusticus but his own _____ about them.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